B형 간염

Hepatitis B

Korean

AAPCHO

Association of Asian Pacific Community Health Organizations

B형 간염이란?

B형 간염이란 HBV라고 불리우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서 간에 심각한 염증상태가 온 질환입니다.
B형간염 바이러스(HBV)에 감염이 되면 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B형 간염은 여러가지 간 질환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 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B형간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간 질환 증세가 생기면 재생불능의 심각한 상태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5~6주내에 B형 간염에서 회복되고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즉 면역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급성 B형 간염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약 5~10%의 경우는 B형 간염 바이러스(HBV)에 대한 면역항체 만들지 못하고 여러해 또는 일생동안 간염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살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하며 특히 신생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많습니다. 만성간염은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B형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계속되는 간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염, 간경화증, 혹은 간암과 같은 질병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있건없건 간에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는 다른 사람에게 B형간염을 감염시키고, 바이러스를 전염시 킬 수가 있어 그사람에게도 간염을 발병시킬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간염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누구든지 B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집단 사람들 에게서 높은 감염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동양인들과 태평양 연안 섬 민족들
- 하이티인들
- 사하라 아프리카인들
- 알라스카 에스키모인들
- 의료계 종사자들
- 혈관주사용 마약 사용자들
-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불 안전한 성관계를 여러사람들과 갖는 사람들
- 정신 박약자들과 같이 수용소에 있는사람들

어떻게 B형 간염이 전염되는가?

B형간염은 우리가 모르게 여러 경로를 통해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1 감염된 혈액이나 혈액 제품에 접촉하여 감염되는 경우

B형 바이러스는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은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헌혈자들에게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사항:헌혈을 함으로써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간염 바이러스는 균이 묻어있는 주사바늘, 주사기나 면도기, 또는 혈액이 묻어 있을 수 있는 물건들을 접촉할 때 전염됩니다.

2 감염된 체액에 접촉하여 감염되는 경우

간염 바이러스는 소변, 정액, 눈물, 침, 모유,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대변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염 바이러스는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 의해 옮겨질 수 있습니다.

3 태아분만시에 감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모는 분만시 신생아에게 바이러스를 전염할 위험이 있습 니다. 이것이 극동 아시아나 개발도상국에서 간염이 많이 전염되는 이유입니다.

4 가족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감염된 가족과의 접촉에 의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으나, 감염의 전염 형태는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B형 간염을 진단할 수 있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B형 간염을 진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혈액검사로써 보균 유무를 알아내는것 입니다. 전문의료인들이 적절한 검사를 통해 B형 간염 여부의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型
性肝炎

B형 간염의 증상은 어떤 것인가?

B형 간염의 증세는 가볍게 앓는 독감과 같이 경미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특히 어린이들)은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역질, 구토, 고열, 피로감, 복통, 근육통, 설사와 같은 심한 증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이 짙은 주황색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증세들 중 일부를, 또는 이런 증상들을 모두 앓게 되기도 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간염에 감염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하는 의심이 들면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 보균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구토감이나 구토증과 같이 심각한 증세를 가진 환자는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되가고 있는동안, 환자들은 과로를 피해야 하며, 여러음식을 골고루 지방분이 적은 식사를 하고 술을 삼가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만을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의료인과의 정기적 검사가 꼭 계속 되어야 합니다. 비록 급성간염에서 완전 회복이 된다 하여도, 면역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계속 간염 전염을 시킬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래 간질환 유발의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의료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B형 간염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임신중인 모든 동양계와 태평양 연안섬 민족 여성들은 과거 간질환의 병력이 없더라도, 간염 바이러스 보균여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감염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자녀들이 감염 될 큰 위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은 오직 신생아가 출생시에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서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출생시 그리고 생후 1개월, 6개월에 2번 더 맞아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안전하며 간염예방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누구든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느껴지거나, 간염의 증세를 느끼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아무런 증상없이 전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사들은 모든 동양계와 태평양 연안 섬 민족들에게 이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염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가?

B형 간염 환자나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간염 바이러스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이 묻어 있을 지 모르는 개인 용품들을 다른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마십시요. (면도기, 치솔, 식기류, 피하 주사기등)
- 절대 헌혈을 하지마십시오.
- 상처들을 잘 덮어 보호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사용후 매번 손을 비누로 잘 씻어야 합니다.
- 당신의 아이들, 배우자 그리고/혹은 성교대상자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콘돔을 사용함으로써 성교를 통한 간염 바이러스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통한 예방

B형 간염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간염 바이러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이 예방주사는, 만성 간염 환자의 가족들과, 출산시 간염 바이러스를 옮길 우려가 있는, 즉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This brochure is available in English, Chinese, Korean, Laotian, Samoan, Tagalog and Vietnamese.

Association of Asian Pacific
Community Health Organizations (AAPCHO)
1440 Broadway, Suite 510, Oakland, CA 94612.
510-272-9536

Printed by Design One
Illustrated by Ellen Joy Sasaki
Designed by Peter Matsukawa